

특별메세지 - 돌봄 II.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1. 고통의 실재

고통이 실재가 되는 순간은 내가 살고있는 '지금'이 힘들어질 때이다. 고통이 힘든 이유는 고통의 시제 때문이다. 고통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다. 현재형이다. 그래서 고통은 실재이다.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현실의 삶에 실재하고 있는 어려움이 고통이다.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다. 추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소원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소원은 배불리 먹는 것이다. 수험생에게 소원은 공부 잘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과 대화 할 수 없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이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현재, 지금, 이곳'에서 출발한다.

내 신앙의 현주소는 '예수'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 질문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여 사귄다. 그래야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오는 괴리감에 빠지지 않게 된다.

예수님의 존재감이 확실해지는 때가 바로 나의 힘이 약해지는 고난과 고통의 때이다. 그 순간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소원이 명확해지는 때이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때라 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이 명확해지는 때를 말한다. 소원이 분명해지는 때이다. 여기서 분명함이란,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안에 명확해지는 때를 말한다. 그 순간이 내 힘의 한계를 경험하는 때이다. 나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감은 분명해진다.

이 '바람'이 명확해 질 때 성경은 그것이 '실상'이 된다고 말한다. 현실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가 된다.

2. 고통 - 명확해지는 소원

인간의 소원이 명확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복잡하지 않은 마음, 아이들처럼 단순한 마음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그 순간엔 내 힘이 약해지는 '고통'의 때이다.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분명해 지는 때이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통의 신비와 비밀을 알게 되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얼마나 실재적인 능력이 되는지 알게된다. 마가복음 5장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삶은 바로 그와 같다. 여인이 겪고 있던 혈루병은 너무나 현재적이고 실재적인 고통이다. 남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동정하거나 이해한다고 이야기 할 때 조심해야 한다. 자신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림짐작해서 말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험도 없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분석적으로 고통을 아는 것처럼 말할 때, 오히려 더 어려운 마음이 된다. 그러므로 남의 고통을 함부로 속단해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마가복음 5:25-26]

25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온 여자가 있었다.

26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인이 처한 고통의 상황을 보라. 12년 동안 병이 있었다. 여인에게 있어서 12년은 여인의 기억과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이다. 그래서 여인은 의사를 찾아 다녔다. 오직 이 괴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했을 것이다. 의사는 여인의 소망을 말한다. 고통에서 건져 줄 해답을 찾는 여인의 마음이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다.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졌다. 노력을 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는 상태이다. 성경은 이 여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말한다.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상황이다. 이런 날이 12년동안 지속되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소원이 있겠는가? 다른 소원이 없다. 고통없는 시간 속에서 하루만, 한 시간만, 아니 1분만이라도 해방되고 싶어했을 것이다. 어쩌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치료는 생각도 하지않고, 악화만 되지 말라는 마음만 간절했을 수도 있다.

이 여인에게 다른 소원은 사치이다. 다른 꿈은 모두 허상이다. 잠을 자는 순간이 악몽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내일은 오늘과 같은 악몽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 실재적 소원

여인의 소원은 단순하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통없는 순간에 살고 싶다.’ 행복,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인의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이 적어도 12년이나 지속되었다. 언제 웃어보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여인의 소원은 거창하지 않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통없는 순간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것이다.

어느날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다. 그런데 그 분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자와 함께 하시고, 배고픈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그 분께 가면 고통받는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고 있었다. 성경을 보니 ‘에워싸 밀더라’고 되어있다. 질서있는 현장이 아니다.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한 순간이다. 예수님을 에워싸 따랐던 무리는 여인과 같이 똑같이 고통가운데 있던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받았다는 사람들의 갈망이 가득한 현장 속에 여인이 있다.

이런 여인에게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고통이 커지면 소원이 명확해 진다. 소원이 명확해지는 순간은 다른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순간이다. 사람이 한 명이 있던, 많은 사람이 있던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간절하다. 이 마음이 바로 여인의 마음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이다. 이것이 환경과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을 것이다.

[마가복음 5:27-29]

27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여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를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29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뒤까지 도달했다. 손만 뻗으면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는 상태이다. 성경을 보니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 같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를 터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거창한 소원이 아니다. ‘제발 오늘 하루라도 행복하고 싶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통없는 순간에서 살고 싶다’ 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여인은 29절에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예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여인이 경험했던 치유는 현재적이다. 오늘, 지금, 내가 살고있는 이 순간에 이루어진 치유이다. 고통은 없다. 오늘 내가 살고있는 하루는 더 이상 악몽의 하루가 아니다. 오늘 고통이 없다면 내일도 없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다.

4.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있으면 된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미래'에 있지 않다. 내가 처한 오늘 하루에 임한다. 여인처럼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치유'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능력은 내 고통의 하루에 실재가 된다.

[마가복음 5:30-34]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31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33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아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의 손길이 다른 손길과 달랐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지 않으셨다. 말씀에 보니 '3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다.'고 되어있다.

놀라운 말씀이다. 어떤 갈망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은 혈루병 여인처럼 거창한 소원이 아니다. 오늘 내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거창한 소원이 아니다. 행복은 현재적이다. 그 현재가 나의 하루가 되어야 한다. '여인의 마음처럼,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부어지면 된다.'

이 간절한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연다.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삶이다. 오늘 예수님의 눈길은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 그 사람을 찾으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친히 찾으셔서 돌보신다. 두려워 떨고있는 여인에게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고 격려하신다.

"이제 네 하루는 고통스러운 하루가 아니란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안심해라.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 되었다. 안심해라. 두려워 하지마라."

하루를 살아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된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있으면 된다. 그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이제 나의 하루는 더 이상 고통의 하루가 아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 한 움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힘만 남아 있으면 된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자.

오늘 내 하루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하루이다. 아멘.